

單発音読クリニック 上トレ4 南海望雲寺

정상에 서니 사방이 탁 트이고 한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눈이 즐겁다.

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바람 한 점 없어 찜통 같더니 정상에선 산

밑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 제법 세게 분다. 이날 산 주변으로

안개가 자욱해 아주 멀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맑게 갠 날에는 내륙 쪽으로

지리산까지 보인다 한다.

정상에서 500m 쯤 떨어진 송신탑까지 가는 완만한 능선 길은 길 폭이

넓고 평평한 데다 잔디까지 깔려 있어 걷는 재미가 일품이다.